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전북대, 몽골서 유학생 최대 1000명 유치

전주매일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음 6월 21일) 제37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헌혈, 생명 나누는 가장 쉬운 봉사"

여름방학 맞아 전북지역 혈액 수급 비상
강진석 전북혈액원장, 도민께 적극 참여 당부
"30분이면 충분… 누군가에겐 소중한 시간"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쉬운 봉사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30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강진석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장은 지난 1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간곡히 당부했다.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전북 지역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평소 헌혈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면서 혈액 공급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강 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 지역은 연간 약 12만5,000여명분의 혈액이 필요하지만,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은 2024년도만 기준 10만4,000여명에 그쳐 약 2만 1,000명분의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에서는 부족한 일부 혈액은 타 시도에서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혈은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번 한 사람이 또다시 헌혈하는 재참여자들이 대부분이다. 헌혈을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여하는 등록헌혈자의 참여 비율 또한 우리 지역은 헌혈의 집으로 오는 개인 헌혈 기준 2024년도만 연간 20여회 넘게 하는 사람도 많다.

현재 도내 헌혈의 84.5%가 재참여자들이라고 알려졌다. 즉 전북 전체 헌혈 건수 6만6,571건 중 5만6,000여건이 한 번 헌혈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경우다. 소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반복해서 헌혈에 참여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강 원장은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지만 한 번 경험하면 헌혈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처음 헌혈을 경험한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다.

전북은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암 환자 등이 늘어나 혈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반면 헌혈할 수 있는 자원은 축소되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북의 연평균 헌혈률이 6.0%로 전국 평균 5.5%보다 높지만, 초고령 지역 특성상 혈액 수요량이 더 많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 10대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강 원장은 "30~60 세대 중 헌혈 경험이 없는 분이 헌혈을 하실 경우 특별기념품을 우편으로 보내 감사와 재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이 헌혈에 참여하면 자녀들도 함께 헌혈의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헌혈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30대 이상의 중장년층 헌혈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도민들이 헌혈을 하고자 해도 "약을 먹는다", "혈압이 있다", "피가 나쁘다" 등의 이유로 헌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 원장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헌혈의 집에서는 사전 문진과 여러 검사를 통해 헌혈에 적합한지 판정하므로, 부담 없이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시면 된다. 헌혈 정년은 만 69세로, 64세까지 헌혈 경험이 있다면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나이 때문에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 원장은 말했다.

강진석 전북자치도혈액원장

이러한 헌혈 정년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헌혈 정년을 더 늘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강 원장은 "단지 30분 정도의 시간과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된다.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기적이 된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한 방울이 응급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에게 희망이 되고,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새로운 내일을 선물할 수 있다"며 헌혈이 특별한 기술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봉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은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등학교에 헌혈 횟수를 늘려달라 요청하고 있으며, 일반 단체 및 관공서, 적십자 봉사회, 라이온스, 로타리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시청이나 군청을 거점으로 월 1회 특정 날짜를 정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헌혈 마당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또한 헌혈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이 헌혈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헌혈자 예우를 위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기업들이 헌혈자용 기념품을 기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강 원장은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 사람들이 팔을 걷어올리기 주저하는 시기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며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차가 보인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발걸음을 멈춰 소중한 생명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도, 후보자 접수 시작

혁신 등 4개 분야 선발 시상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격려하기 위한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전북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도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이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이 상은 그동안 17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사회 귀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수상자는 △혁신 △경제 △문화 △나눔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된다. 과학기술,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교육, 사회봉사, 효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 위상을 높인 인물이 대상이다.

추천은 도내 기관·단체·기업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전북도민이 연서한 경우 가능하며, 본인의 자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 자격은 공고일(7월 14일) 기준 전북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전북으로 되어 있고, 해당 분야 공적이 있는 인물이다. 단, 기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월 29일까지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또는 시군 자치행정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추천에 의한 동의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고, 10월 24일 예정된 '제45회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 왼쪽부터)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결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공동행보 본격

〈전북·제주·세종·강원〉

법저익구 전환 후 첫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정책토론
특별법 개정·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등 공동 결의

대한민국 4개 특별자치시도(전북, 제주, 세종, 강원)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첫 공식 회의로, 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지방시대위원회, 학계 및 연구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협의회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4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행정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과제를 발굴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핵심인 공동결의문에는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천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 선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 주요 과제의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결의문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가 직접 서명했으며, 향후 공동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으며,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전략과 법적·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세종·제주·강원·전북 연구원 등 각 시도 전문가들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재정분권 확대, 중앙과의 제도적 협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도 동참하며,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 운용사 3곳 우선협상대상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북 벤처투자위원회를 통해 '2025년 제2차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의 운용사 3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운용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인라이트벤처스', △창업벤처(엔젤투자) 분야에 '안다아시아벤처스·KB증권 컨소시엄',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JB인베스트먼트'다. 이들 운용사는 전북자치도의 출자금 95억 원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1,21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하반기에도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 결성을 목표로 7월 중 새로운 출자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